

자승 스님, 종교평화 기금 4만 달러 전달

3월 레바논 방문 당시 지역현안 해결위한 약속 실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내전을 겪고 있는 레바논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금을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만수르 다우 레바논 남부 주지사에게 종교간 화합·평화 자비기금 4만 달러(약 4400만원)를 전달했다.

이번 자비기금 전달은 레바논 동명부대 격려 당시, 총무원장 스님이 불교계가 부르글리아 지역 현안 문제인 공동묘지 부지 매입을 위해 종단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뤄지게 됐다. 부르글리아 마을은 공동묘지가 없어 사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시신을 매장했고, 이로 인해 지역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달식에서 자승 스님은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했다. 이번 전달을 계기로 지역 현안 문제인 공동묘지 부지와 관련한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만수르 다우 주지사는 “부르글리아 주민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조계종의 지원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과 레바논의 거리는 멀지만 동명부대 파병과 조계종의 지원 등으로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만수르 다우 주지사, 하산 드브크 레바논 티르시장, 동명부대 민사협조반장 남상환 중령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9일 만수르 다우 레바논 남부 주지사(사진 오른쪽서 두번째)에게 종교간 화합·평화 자비기금 4만 달러를 전달했다.

“종단·종무원 명예 실추, 법적 책임 묻겠다”

조계종 종무원조합, 6일 정봉주 前 의원 고소

바른불교모임 “논란에 사과” 전과 논란 김영국 대표 사의

정봉주 前 국회의원이 바른불교재가모임 창립 축사로 “조계종은 김정은 집단”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조계종 종무원조합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정우탁)은 4월 6일 종로경찰서에 정봉주 前 의원을 모독죄로 고소했다. 또한 정 前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종무원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실추된 종단과 종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연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정봉주를 6일 종로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나아가 종무원조합은 기타 법적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조계종이 아무 역할도 안했다”는 정 前 의원의 비판에 대해 종무원 조합은 “종단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봉사단을 맹목함에 파견해 활동했고

종교단체로는 유일하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식의 ‘중복몰이’라고 성토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바른불교재가모임(대표 우희중)은 4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창립 이후 벌어진 설화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변호사법 등 전과 논란이 불거진 김영국 공동 대표는 사의를 표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공동대표로 영입했던 김영국 연경정적연구소장이 자신에 대한 법보신문의 과거 전력 공표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받아들이기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봉주 前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 前 의원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불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저희 모임의 정신과 취지는, 의식있는 불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부 권력승들만을 제외하고는 결코 불운하거나 과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종헌 개정안 인준 부결

미등록법인 권리제한 명확히… “종회서 재논의” 요구

원로회의 명칭 존치기로 결의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의견도
송담 스님과 면담 성사 안돼

지난 201차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통과된 종헌 개정안이 마지막 절차인 인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안 인준에 대해 논의하고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로회의가 종헌 개정안 인준을 부결시킨 것은 지난 2012년 ‘종헌’ 개정안 인준을 부결하고, 지난해 7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려한데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원로회의는 종헌 개정안 9조 3항 등 세세한 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헌개정안은 △종정 자격조건 가운데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원로회의를 원로회로 변경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 제한 대상자와 내용을 종법으로 규정 △총림 방장의 중임 금지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중앙총회에서 선출하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로회의는 종헌 9조 3항의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권리제한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리제한을 해야 한다”고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94조 4항의 ‘사설사암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고 개정된 것을 ‘사자상승함을 인정한다’고 수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원로회의’를 ‘원로회’로 명칭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치기로 했다. 이후 원로회의는 인준을 부결하고 중앙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기타사항에서는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았다.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이 회의에 참석해 위원회 구성 취지와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원로의원 스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으며, 일부 스님들은 선학원의 특별교구 지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국대 사태에 대한 원로회의 차원의 문제 진단에 대한 주장도 있었으나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5월 종정 진제 스님의 증명 아래 세계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를 봉행한다. 간화선의 선근을 선양하기 위한 무차선대법회와 연등회가 조화롭게 배치되는 뜻 깊은 자리인 기원대회에 평소의 원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은다면 못할 일도,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로의원 스님의 지혜로움이 매우 소중하다. 종단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청안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원로회의가 지난해 탈종을 선언한 송담 스님(법보선원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는 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은 경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면담 건 때문에 원로스님 대역섯 분이 송담 스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으나 몸이 편찮아 다른 사찰로 가셨다고 해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상좌 스님에게 다녀갔다고 전해달라고 한 상황 밖에 없다. 이후로 연락을 못 해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는 의장 밀운 스님, 부의장 원명·명선스님을 비롯해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사, 어린이·청소년 포교 나선다

8일 종로경찰서와 청소년 위한 템플스테이 협약

청소년 자립 성장 도움줄 듯
18일 불교아동연구 MOU도



서울 조계사와 종로경찰서는 4월 8일 오전 11시 1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위기청소년들의 심신 안정을 돕기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종로 조계사가 정부·전문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나선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와 종로경찰서(서장 윤병성)는 4월 8일 오전 11시 1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위기청소년들의 심신 안정을 돕기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사와 종로경찰서는 학교 폭력 가·피해자 및 학교 밖 위기 청소년, 탈북자,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립과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에 담아낼 계획이다. 여기에는 종로경찰서의 담당 주무부서인 여성청소년과와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가 동참한다.

이 자리에서 운명성 사장은 “경찰과 지역이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하겠

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로 진행되는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평가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주요 사찰 별로 운영 중인 동자승 단기출가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조계사 보리수 새싹학교는 11월까지 동자승 어린이를 선착순으로 모집했으며, 부모면담과 조기적응교육을 마친 후 5월 11일 사발수계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신성민 기자

는 조계사와 동국대 불교아동교육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평가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주요 사찰 별로 운영 중인 동자승 단기출가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조계사 보리수 새싹학교는 11월까지 동자승 어린이를 선착순으로 모집했으며, 부모면담과 조기적응교육을 마친 후 5월 11일 사발수계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스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한다

4월부터 월 2만원 범위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는 승려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올해부터 종단이 시행하고 있는 승려복지 제도에 따른 것으로,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직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가운데 교구와 사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스님으로, △주소지가 사찰로 등재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사찰인 경우에는 사찰에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구와 사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스님들의 경우 종단에서 지원한다.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관리인·관리인의 도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각 분기 말까지이며, 우편이나 팩스(02-733-3603)등을 통해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종회 모니터링 사실에 근거해야”

종회사무처, 평가서에 유감 표명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처장 태호)가 201차 임시회에 대한 중앙총회 NGO모니터단(단장 김종규)의 결과보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총회 사무처는 4월 3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중앙총회 NGO모니터단이 3월 30일 언론에 발표한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모니터단이 본회의장에 있었음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것은 모티터단 활동가의 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 사전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회사무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성급하게 평가서를 언론에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모티터단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과 평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과감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티터단의 운영이 향후 성숙해지고 전문성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2. 학교소개

-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인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에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5.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